

방송기술저널

266호
2018년 8월 8일(수)

‘중간광고 허용’ ‘종편 특혜 환수’ 이번엔 가능할까?

이효성 방통위원장 업무보고에서 “비대칭 규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상파의 예능, 드라마 등의 기세가 예전만 못하다. 지상파는 점점 방송 광고 시장에서 입지를 잃어가고 있고, 그 자리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나 CJ E&M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가 채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는 여전히 규제에 얽매어 있고, 신생 사업자가 아닌 종편은 아직까지도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비대칭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5일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이효성 방통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을 향해 “지상파와 비지상파 간 점유율 격차가 많이 줄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아직 심한 것 같고, 중간광고도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차별이 아니냐”고 물은 뒤 “중간광고가 석유 파동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도 여기 와서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지적대로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는 지난 1974년 3월 석유파동 당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작됐다. 지상파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 방송 업계에서 지상파를 제외한 종편, PP 등에는 다 허용되고 있는데 왜 지상파만 여전히 중간광고 금지라는 제도에 묶여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1994년 당시 경제기획원도 ‘광고 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중 하나로 지상파의 중간광고 금지를 꼽았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가 있으면 용감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지상파와 종편 모두 7년 전과는 많이 바뀌었다”며 비대칭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제는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연구하고 있다”며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상파와 종편이 과거와 다르게 차이가 없고, 지상파망 유지 비

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대칭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고려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 위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비정상적 정상화’ 구현을 강조한 만큼 방통위가 중간광고 허용과 종편 특혜 환수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상파의 광고매출점유율은 2011년 67.2%에서 2016년 54.8%로 12.4%p 하락한 반면 종편의 광고매출점유율은 2011년 1.7%에서 2016년 11.1%로 9.4%p 상승했다. 또 시청점유율 역시 지상파는 2011년 61.9%에서 2016년 55.0%로 6.9%p 하락했고, 종편은 2011년 1.4%에서 2016년 15.0%로 13.6%p 상승했다.

방송사 관계자는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지상파는 하락세에 있고, 종편을 비롯한 케이블은 상승세에 있다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은 ‘지상파 하락 종편 상승’인데 정작 규제는 지상파에 엄격하고 종편에는 ‘의무전송채널·1사 1미디어업을 통한 사실상의 광고 직접 영업 허용·10년대 황금 채널 배정’ 등의 다양



©뉴스시스

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반면 지상파는 급격한 광고 매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어 경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시아 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과 기술 발전으로 한때 회당 7,000~8,000만 원 정도 하던 드라마 제작비는 회당 5억 원을 넘는 수

준으로 올랐다. 현재 tvN에서 방송 중인 〈미스터 션샤인〉은 회당 제작비가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 회 평균 9,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하는 배우와 작가의 몸값 여기에 해외를 비롯한 로케이션 촬영, 다양한 촬영 장비 적용, 색 보정 및 컴퓨터 그래픽 등 후반 작업 등 제작비 상승은 지상파가 온전히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넷플릭스, 미디어 ‘공룡’이 아니라 ‘메기’될 것 “우려할 것은 시장 잠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 방식”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The-Top, 이하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범인은 바로 너, 〈미스터 션샤인〉, 〈킹덤〉 등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에 적극 투자하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와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이를 통한 ‘메기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콘텐

츠 유통 전략과 과제’ 세미나에서 넷플릭스가 우리 미디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참석자들은 “시장 잠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확한는 단기적으로 시장 잠식은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에 따라 이후 상황이 변화할 거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박사는 넷플릭스가 영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영국과 우리나라 VOD 시장은 환경이 아주 다르다”며 이를 근거로 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높은 직접수입율을 기록하며 지상파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VOD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인터넷TV(IPTV)를 중심으로 VOD 시장이 강력하게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사업자들이 선별자 우위를 가지고 있고 콘텐츠라는 것이 로컬리티를 갖는 분야”라며 넷플릭스가 독점적 위치에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황유선 박사는 “넷플릭스가 바이어로 역할 하며 콘텐츠 수요가 증가했고, 유통망으로 역할 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파이가 커졌다”며 “그에 따른 과세 수효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종사자에게 돌아가는 몫도 늘 수밖에 없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광구태 순천향대 교수도 “넷플릭스의 공격적 투자가 국내 기업의 투

자와 혁신을 촉발하는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긍정적 기대를 내놓았다. 더불어, “시장 포식자로 군림해온 국내 방송 사업자가 건강한 생태계를 우려하는 상황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과연 그동안 시장 포식자가 누구였느냐”고 반문했다. 방송 사업자들이 넷플릭스의 투자로 국내 시장이 하청기화되는 걸 우려하고 있지만, 기존에 외주 제작 시장에서 관행처럼 불공정 거래가 계속돼 온 것을 꼬집는 것이다.

걱정할 것은 시장 잠식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게 토론자들의 의견이다. 이종관 박사는 “오리지널 콘텐츠 비즈니스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해야 하는 고비용의 리스크가 큰 구조”라면서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에 비해 영업이익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지상파 방송사 또한 태생적으로 동일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진 점에 주목했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은 계약을 두고 공격적 투자를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의 미래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처럼 드라마 회당 15억 원가량의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수도 없는 것이 지상파의 현실이다. 이 박사는 “지상파가 어떻게 규모의 경제를 찾아가느냐 이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도 콘텐츠 투자는 시장 규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사실 투자 비용 구조를 깰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던 것”이라며 한류를 예로 들었다. 한류 열풍을 타고 국내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졌지만 방송 사업자들이 장기적 관점으로 구조 개선에 투자하기보다는 해외 로케 같은 단편적 방식으로 투자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광구태 교수는 “적도 동지도 없는 시장이지만 신뢰는 보였으면 좋겠다”며 그 신뢰는 외주제작사에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시장 진출로 소외 받는 한국 외주 제작 시장의 문제가 노출된 것은 분명하며,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약자에 있으나 가장 중요한 개체라는 인식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기 효과는 강한 경쟁자로 인해 활동 수준이 높아져 전체 분위기가 활성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가혹한 환경에서 오히려 원동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최세정 고려대 교수는 “외주 제작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위기의식이 있을 때 시스템의 개선이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 개선에 방점을 두고 질 좋은 콘텐츠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비쳤다.

전순희 sh45@kobeta.com

방송기술저널 267호는 9월 12일(수)에 발행됩니다.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ROADCASTING & TECHNOLOG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 세미나 및 기술 도서 안내문 발송
- KOBA(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 방법

- 1년간 8만 원 / 6개월 5만 원
- 계좌 : 신한은행 100-030-515021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지상파 방송사에 무슨 일이?

EBS 노조 “UHD 송신 부담 각서 서명한 장해랑은 사퇴하라”

“현행법상 UHD 송신 설비는 100% KBS 부담 뛴”

장해랑 EBS 사장이 '수도권 지상파 UHD 송신 지원에 관한 합의 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이하 EBS 노조)는 이번 사안을 EBS판 '트로이 목마'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장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EBS 노조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허육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이 가져온 각서를 밀실에서 단독으로 서명했다. 해당 각서의 내용은 EBS가 수도권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한 송신 설비 구축 비용의 1/4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EBS 노조는 “UHD 방송 송신에 관한 황당한 소문이 돌 때까지만 해도 그저 소문이

길 바랐는데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장 사장이 밀실 서명한 각서는 현행 방송법과 감사원 조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송법 제54조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KBS가 이행해야 할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도 “KBS가 UHD 교육방송의 송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EBS 노조는 “UHD 송신 설비 비용은 KBS가 부담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무리하게 중재에 나섰고, 해당 각서에 서명을 한 장 사장은 EBS 이사회 등 여러

한 내부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독단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EBS 노조 관계자는 “장 사장은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할 재원 부담을 EBS에 안기는 결정을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것은 명백히 EBS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BS 노조는 “EBS 노조가 진상 파악에 나서자 장 사장은 7월 26일 아침 황급히 방통위로 출근해 각서를 폐기해달라고 간청했다”며 장 사장을 향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만이 밀실 각서에서 비롯될 모든 문제를 일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에도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KBS 송신 지원 임무를 EBS를 압박해 떠넘기려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원천무효”라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장 사장은 30일 오전 EBS 사내 계시판을 통해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 서명했을 수도 있다고 착각했을 뿐 실제 서명을 한 적은 없다”며 “스쳐 지나가는 문건이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간부들에게도 공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EBS기술인협회·PD협회 등으로 이뤄진 EBS직능단체협의회는 장 사장의 주장을 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EBS직능단체협의회는 “매일 전까지만 해도 그 각서는 전략적인 경영 판단하에 서명했다고 당당히 밝힌 당신이 자신의 기억조차 믿지 않게 됐다”며 “분노를 넘어 놀라움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BS직능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장 사장은 노조 면담 전 EBS 부사장과 정책본부장, 기



술본부장에게 서명 사실을 시인했으며, 노조 면담 시에는 “10~30억 원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EBS 노조는 8월 1일 오후 일산 EBS 사옥 1층 로비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장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백선하** baek@kobeta.com

OBS-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 협상 난항…결국 공은 방통위로

OBS, 방통위에 ‘지상파 재송신 대가 검증 협의체’ 신청

인터넷TV(IPTV) 3사-위성방송 등 유료방송과 재송신 협상을 하고 있는 OB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검증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OBS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와 2월 20일 협상 요청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공식 9차례, 비공식 4차례 등 총 13차례에 걸쳐 재송신료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방통위에 지상파 재송신 대가 검증 협의체를 공식 요청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지상파 재송신 대가 검증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2016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정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해당 기구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자문 역할을 한다. 방송사가 재

송신료의 적정성을 놓고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BS는 “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료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데다, 협상 과정에서 스카이라이프 측이 공정한 재송신료 대가 검증과 관계없는 CPS 방식이나 채널 이동 등의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협의체가 향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를 둘러싼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MBC, 지역민방 등은 케이블과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콘텐츠 제공 대가인 재송신료를 받고 있지만 지상파 중 유일하게 OBS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OBS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가입자당 월 400원의 CPS를 받고 있으며, 지역민방은 각 민영방송별 권역에서 가입자당 월 240원의 CPS를 받고 있다. OBS는 “OBS와 같은 지역민방인 KNN은 지난해 58억 원의 재송신료를 받았으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5억 원의 재송신료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들이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달했으며, 이어 경기·인천·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6월 26일 다시 한번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등에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80여 명의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OBS는 그동안 계속해서 재송신료를 요구했지만, 거대 통신 사업자와 재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송출 중단’이나 ‘채널 이동’ 등의 압박을 가하며 재송신료 지불을 외면해 왔다”며 “경기·인천·서울 2,600만 사도민을 대표해서 OBS의 재송신료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KBS 공영노조 “김제동이 앵커라고?”

KBS “뉴스가 아닌 시사토크쇼” “MC 선정 권한은 제작진” 반박

KBS 공영노동조합이 방송인 김제동 씨가 ‘뉴스쇼’ 형식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다는 소식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KBS 공영노조는 7월 31일 ‘이제 KBS 뉴스 앵커도 김제동 씨가 맡는다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좌편향 인사들이 KBS 주요 시사 프로그램을 도맡아 방송하더니 이번에는 뉴스 앵커에 개그맨 출신 방송인 김제동 씨를 기용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KBS는 가을 개편을 대비해 KBS 1TV 밤 10시부터 11시 시간대에 PD들이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KBS 공영노조 측은 “뉴스 프로그램의 제작을 PD들이 맡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하는 등 보도본부 기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다”며 “PD들은 뉴스가 아닌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지만 기자들은 뉴스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되는 것은 제작 주체 영역 침범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의 문제, 또 편파성의 문제”라며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PD들이 (시사투나잇)이라는 타이틀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해당 프로그램은 내용보다 잦은 편파 시비로 더 많이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KBS 공영노조 관계자는 “김제동 씨의 앵커 기용에서 알 수 있듯 KBS가 또다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가 아닌 특정 진영 위주

의 편파적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KBS는 “KBS에서 현재 준비 중인 프로그램은 뉴스가 아니며, 김제동 씨가 앵커로 출연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MC와 관련해 김제동 씨 측과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며 “프로그램 MBC 선정 권한은 제작진에 있고, 해당 프로그램 편성 시간과 문칭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안을 놓고 내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S 공영노조는 KBS 내 5개 노조 중 하나로, 주로 근속 25년 이상인 직원 40여 명(올해 1월 기준)이 가입된 소수 노조다.

최근 KBS 사측은 공영노조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KBS는 “공영노조가 7월 25일 성명을 통해 진실과미래추진단의 조사를 받은 직원들이 단순하게 자신들의 이메일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조사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조사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매도했다”며 “해당 주장이 언론매체에 실리고 같은 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들조차 진실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등 KBS 신뢰에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방송단 발대식 개최

KBS “한반도의 평화 염원하는 마음으로 중계할 것”

SBS, 국민 타자 이승엽·축구계 독수리 최용수 등 최고의 해설진 출격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하 아시안게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시안게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카르타와 팔렘방 두 지역에서 열리며, 1만 명이 넘는 선수들이 40개 종목, 465개 세부 경기에서 메달을 다툰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 중 하나는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다는 것이다. 여자농구와 카누 드래곤 보트, 조정 등 세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다. 국제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는 건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 이

어 이번이 두 번째다.

KBS는 1일 오후 2시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을 위한 발대식을 가졌다. KBS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장이 아시안게임을 통해 한층 더 무르익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슬로건도 ‘함께하는 평화 함께하는 미래’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종목별 해설위원들과 중계 캐스터 등 아시안게임의 생생한 현장을 전해줄 제작진들이 모두 모였다.

양승동 KBS 사장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점에 스포츠가 어느 분야보다도 서로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KBS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KBS 방송단의 성공적인 중계방송을 주문했다.

SBS도 3일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중계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은 SBS 캐스터인 조정식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뤄졌으며 ‘국민 타자’ 이승엽과 ‘축구계의 독수리’ 최용수를 비롯해 ‘탁구 레전드’ 현정화,



한국인 최초 유도 세계선수권 3연패를 기록한 전기영,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4연패를 기록한 정국현, 양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부부 박경모·박성현 등 총 25인의 쟁쟁한 선수 출신의 해설위원들이 소개됐다.

이승엽 위원은 “아구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SBS 명성에 걸맞은 멋진 해설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최용수

위원은 “시청자들이 경기를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선수 시절의 경험과 저만의 위트를 잘 접목시켜 친근한 해설을 선보이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7일 결단식에서 6회 대회 연속 종합 2위 수성의 결의를 다지고 종목별로 차례로 인도네시아로 떠났다. 본진은 8월 15일 출국할 예정이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KT, 아시안게임 방송중계망 구축 완료

“국제해저케이블 전체 구간 주경로와 예비경로로 이중화”

KT는 아시안게임 중계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국제방송중계망 구축을 완료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KT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실시간으로 국내에 전송하기 위한 국제방송중계망 주관 통신사로 선정돼 현지 KT 국제방송중계

망을 통해 전송된 방송을 화해에 위치한 KT 국제통신운용센터에서 받아 지상파 방송사에 단독 제공한다.

KT는 원활한 방송 중계를 위해 자카르타 국제방송센터(IBC)와 한국 지상파 3사 간 국제해저케이블 전체 구간을 주경로와

예비경로 형태로 이중화했다. KT가 홍콩에 운용 중인 해외거점시설(Point of Presence, POP)을 활용해 네트워크 장애 등 만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우회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 해저케이블뿐 아니라 육로를 통한 광케이블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대만 앞바다에서 대규모 지진 등이 발생하더라도 KT 홍콩 POP에서 중국을 경

유하는 육로를 통한 광케이블로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KT는 11일부터 대회가 종료되는 9월 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개설해 성공적 통신 지원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아시안게임 원정응원단 등 인도네시아 관광객을 위한 국제전화 및 국제인터넷 소통 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무결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인 KT 글로벌컨설팅수행단장 상무

는 “KT는 2014 브라질 월드컵, 2016 리우 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이번 아시안게임까지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의 방송중계망을 제공해왔다”며 “KT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기쁘게 생각하며, 남북단일팀이 출전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국민 기업으로서 방송 중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범 jnb1001@nate.com

코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공영방송 이사,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전락한 이사회”…“국민 신뢰 떨어뜨려”
“방송기술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이사 등 다양한 평가 기준 필요해”

“공영방송이 제대로 서 있어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공영방송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망가진 공영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하고, 그 기본 조건 중 하나가 정치로부터 독립된 이사 선임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제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공영방송 이사의 조건’에 발제자로 나선 박태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정책위원의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밝힌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놓고 말이 많다. 방통위는 이전 공모와 다르게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요구했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검증단’ 운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후보

자 정보 공개에서 추천 단체를 뺀 것은 결국 지금까지와 같이 여야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 이사 후보들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으로부터 언론과 공영방송을 보호해야 할 방통위가 여전히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18년 주요 국가의 뉴스 브랜드 신뢰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JTBC가 6.75로 1위인 반면 KBS는 5.45로 5위, MBC는 5.34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영국 BBC 7.02(1위), 독일 ARD Tagesschau 7.01(1위), ZDF heute 6.85(2위)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박 정책위원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국과 독일 등의 국민들만큼 공영방송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겠느냐”며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해버린 거버넌스 체계 즉 정치적 투쟁의 장이 돼버린 ‘이사회’

가 지배하는 공영방송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비상임 이사 11명으로 구성되고,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은 상임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직접 임명하고, EBS는 비상임 이사 9명을 방통위가 임명한다. 다만 EBS 이사회에는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추천이 각각 1명 포함돼야 한다.

오정호 방송독립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법 규정과는 무관하게 집권 세력과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KBS는 여당 추천 7명·야당 추천 4명, 방문진은 여당 추천 6명·야당 추천 3명으로 선임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실질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방통위가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스스로가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사 추천과 임명을 진행해야 한다”며 후보자 검증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는 KBS 이사 후보 중 한 명인 김대희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KBS 새노조는 7월 24일 오후 노조 대회 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간 KBS재판 사장으로 재직 시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출장비 허위수령, 회사자산 사적 이용, 직원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 등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KBS 감사실에 정식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KBS 새노조는 “방송독립시민행동의 (명단 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위 혐의 의혹이 특히 중대하고 사실로 믿을만한 증거

하지만 방통위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이사 추천과 임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7월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방통위에 접수된 ‘국민 의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부분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정용기 자유한국당 간사는 방통위의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이것은 과거 전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잘못된 일”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여론몰이·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의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7월 31일 긴급 성명을 통해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지금 방통위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온다”며 “법으로 보장된 독립성을 지키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검증 작업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방통위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직접 제출한 의견을 보겠다는 것은 선임 절차에 개입하겠다는 의사와 다름이 없다”며 “현재 방송법

그 어디에도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된 정치권의 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방송독립시민행동은 ①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철학(방송의 독립성) ②공영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공영성) ③공영방송 조직과 경영의 투명성, 자율성, 개방성을 증대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업무역량) ④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변화 및 매체 산업 구조 등에 대한 이해(업무전문성) 등의 10가지 자체 이사 검증 기준을 제시했다.

박태순 민언련 정책위원은 “공영방송 이사들은 공영방송 운영에 있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각자의 전문적 소양을 갖추 필요 있다”며 “특히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변화와 매체 산업 구조 및 문화 변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영방송의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방송기술 등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 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 여성 등 공영방송이 균형 있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소양을 갖춘 재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독립시민행동 “공영방송 이사 후보 15명 부적격”

KBS 새노조, 김대희 KBS 이사 후보 자진 사퇴 촉구

방송독립시민행동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중 부적격 후보자 15명의 명단을 제출하며 모든 공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넘겼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7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언한 대로 5일간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을 벌였고, 이를 통해 KBS 이사회 7명, 방문진 8명 등 총 15명의 부적격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 내용을 방통위에 국민 의견으로 제출했다”며 “이제 방통위의 결단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다만 “부적격 후보자 명단은 선임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적격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들 중 절반 가까이가 과거 업무상 횡령과 배임, 공적 자산 사적 유용 등의 비위 행위와 성평등 침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고, 또 다수가 방송법 및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해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전력이 있었다”며 “일반적인 공직 및 공공기관 임원 선임 시 용납되지 않는 자질의 후보자들이 최소한의 자기 검증 없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VOD 소비는 느는데 장애인 방송 VOD는 턱없이 부족

넷플릭스, 모든 영상 콘텐츠에 폐쇄 자막 제공하고 있어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의 이용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시청각 장애인의 VOD 서비스 접근성은 현재저리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장애인 방송 VOD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간담회를 7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 자리한 참석자 중 장애인 방송 VOD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는 없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떠맡는 이도 없었다.

장애인 방송은 2012년부터 의무화해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어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 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한다. 이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는 매년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평가받으며 방송 평가에 반영된다. 그러나 VOD 서비스의 경우 편성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오세정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케이블, 인터넷TV(IPTV), 위성 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장애인용 VOD 보유 비율은 최소 0.0007%에서 최대 0.0011%에 불과했다. 없는 것과 다름없는 수치다.

이렇게 낮은 수치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강민석 YTN PD는 “시청자와 가장 가까운 플랫폼사에서 해야 할 문제”라며 유료방송 사업자에 책임을 넘겼다. 반면, 콘텐츠 유통사인 KTH의 전경미 과장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작사업자에 책임을 물었다.

발제를 맡은 최은경 책임연구원은 “넷플릭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폐쇄 자막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사의 신규 콘텐츠의 경우 미국에서 100% 화면해설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 2010년 미국 청각장애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NAD)

가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일이 있었다.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으며, 2014년까지 영화를 포함해 모든 영상 콘텐츠에 자막방송을 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모든 영상 콘텐츠에 폐쇄 자막 방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콘텐츠에서 한국어 폐쇄 자막을 보급하고 있다.

곽정민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는 “넷플릭스의 사례가 (장애인 방송 VOD 서비스 확대가) 불가능한 게 아님을 증명하고 있고 기술 진보로 단가가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권고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이유는 사업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애인 방송 여건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대군·사랑을 그리다)의 경우 일본 중장년층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사극 고전팬층의 영향으로 여론이 크게 일었던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게시물 수는 적은 반면,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 소통하는 방식이 일반적 형태였으며, 동영상 시청은 5분 미만 동영상보다 5분 이상의 동영상에 훨씬 많았다. 동영상 개수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JTBC <밤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관련 반응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드라마 삽입곡(OST)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었다.

방통위는 “하반기에도 국내 방송 콘텐츠에 대한 해외 인터넷 반응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 조사가 방송 콘텐츠 수출은 물론 국가 간 방송 콘텐츠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숙희 sh45@kobeta.com

한류 여전히 진행 중…해외에서도 실시간 반응 뜨거워

방통위, 국내 드라마 2018년 1차 해외 인터넷 반응 조사 결과 발표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에서 국내 드라마의 한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던 JTBC <밤 잘 사주는 예쁜 누나>, MBC <위대한 유혹자> 등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류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콘텐츠 수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내 드라마의 해외 인지도나 인기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시청자들의 인터넷상 반응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4월 국내에서 방송한 21편에 대한 반응을 알아봤다.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네티즌 여론은 총 40,654건, 뉴스 기사는 330건, 동영상 수는 3,418개였으며, 1,40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네티즌 여론, 뉴스, 동영상 전 부문에서 JTBC <밤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관련 반응이 가장 많았다. 특히, 남자 주연 배우인 정해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의견 공유가 활발했으나, 주로 DVD 대여·구매를 통해 이뤄지는 일본의 동영상 시청 문화 때문에 온라인상 반응 수가 많지는 않았다. 배우 장근석의 출연에 힘입어 동영상 조회 수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SBS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관련 반응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TV조선 <

기술용어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2012년 세계적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인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는 토론토 대학의 슈퍼비전이 84%의 정답률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진을 보고 컴퓨터가 그 사진이 무엇인지 맞히는 이 대회는, 이전까지 최고 정답률이 74%였다.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이 정답률 74% 선에서 0.1%의 싸움을 하고 있었고 75%를 갱신하는 것이 모든 참가자의 목표였기에 84%라는 엄청난 기록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슈퍼비전에 사용된 딥러닝 알고리즘이 바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다.

입력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조합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컨볼루션 커널(Convolution Kernel)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이 CNN의 핵심이다.

페이스북은 2017년 CNN을 사용한 번역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경쟁사에 비해 9배 빠른 번역 속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문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단어씩 처리하는 방식이었으나, CNN에 기반을 둔 아키텍처는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에 집중한다. 인간이 문맥을 이해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전숙희 sh45@kobeta.com

신임 방송협회장에 박정훈 SBS 사장

박정훈 SBS 사장이 8월 1일 제23대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방송협회는 지난 4월 20일 열린 정기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박정훈 SBS 사장을 선출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7월 31일까지다.

박 신임 회장은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1991년 SBS PD로 입사해 편성실장, 제작본부장, 드라마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생명의 기적’, ‘환경의 역습’ 등을 연출했으며, 한국방송대상, 백상예술대상,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박 신임 회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제로 인해 유료방송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경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향후 협회장으로서 지상파가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는 확실히 되찾고, 불공정한 혜택을 내려오는 매체들의 권리는 공정한 규제로 재설정 하는 등 당면 과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을 보좌해 방송협회 사무처를 이끌 신임 사무총장으로는 양윤석 SBS 정책팀 부국장이 선임됐다. 양 신임 총장은 SBS 도쿄특파원, 보도국장, 정책팀장 등을 역임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와이브로 결국 역사 속으로

KT “서비스 9월 말 종료” SK텔레콤 “사업 종료 검토 중”



‘토종 통신 기술’인 와이브로(WiBro)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KT는 오는 9월 30일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와이브로는 2000년대 초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삼성전자가 주축이 돼 개발

한 토종 기술로, 이동 중에도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인터넷 기술이다. 와이브로가 처음 나왔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LTE 기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고, 정부도 순수 국내 기술이라는 기대 속에서 국책 사업으로 와이브로를 지원했지만 뒤늦게 기술 개발이 이뤄진 LTE 기술이 와이브로에 비해 투자 금액 대비 효율이 높다고 밝혀지면서 너도나도 LTE 기술로 갈아탔다. 결국 4세대 이동통신 표준기술을 놓고 통신사업자들이 LTE를 선택함에 따라 와이브로는 일종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됐다.

와이브로는 지난 2013년에도 퇴출 위기에 놓였지만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2.3GHz 대역에서 제공 중인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미할당된 2.5GHz 대역 40MHz 폭 주파수에 대해서 신규 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TDD(통탐에불루선 시분할)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구 전략을 내놓으면서 잠시 살아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실패한 기술인 와이브로에 집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현재 KT 와이브로 가입자는 5만 명 수준이다. KT는 2006년 4월 상용 서비스를 시작

하면서 전국 82개 시도에 와이브로망을 구축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LTE 시대로 넘어오면서 와이브로 이용자 수가 급감하자 사업 종료로 결정했다. KT보다 와이브로 가입자 수가 더 적은 SK텔레콤도 와이브로 사업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계획이지만 9월 말 종료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네트워크 종료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 와이브로 가입자들이 불편 없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환 지원 프로그램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와이브로 이용 고객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LTE egg+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지를 원하거나 LTE egg+로 전환할 경우 기존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금 모두 면제된다. 또 신규 LTE egg+ 단말 구매에 따른 고객 부담금도 보증금 단말 공시지원금 기준으로 24개월 약정 시 무료 제공되고,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요금제를 이용 중이었던 고객들은 별도 단말 교체 없이 LTE egg+ 요금제로 전환된다.

KT 관계자는 “품질 유지와 이용자 편의 제공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돼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며 “계획대로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가 이뤄질 경우 5G로 진화해 나가는 글로벌 통신 환경에 더 적극 대응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KT, 세계 최초 ‘네트워크 블록체인’ 개발

“국내 블록체인 1조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

A 씨는 집을 비울 때가 많아 웹캠을 사용한다. 예전엔 해킹 걱정에 안 쓰는 사람이 많았지만 A 씨는 걱정하지 않는다. 또 메일 확인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지만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다. 자동 로그인으로 메일을 확인하니 구청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쓰레기 수거일을 어느 날짜로 할지 블록체인 투표

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를 마치고 A 씨는 시장에 나가 지역 화폐로 장을 보고 돌아온다. # 수요관리사업(DR)에 참여 중인 B 공장은 최근 수익이 늘었다. 블록체인 기반 감축계약 용량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반 감축 계약 용량 거래 시스템은 사전에 매도-매수 조건을 입력해 두면 감축 용량 초과 및 부족분을 자동으로 거래해 오

늘처럼 납기일이 이뤄져 공장 운영을 늦출 수 있는 날, 추가로 전력을 감축하고 그것을 판매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블록체인이 변화시킬 대한민국의 미래 생활

모습이다. KT는 7월 24일 광화문 KT 빌딩에서 ‘블록체인 사업전략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초로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공개했다. KT는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1조 원 규모로 성장하도록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KT 블록체인은 2019년 말까지 최대 10만 TPS(Transactions Per Second, 초당 거래량)의 성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현재 KT 블록체인의 성능은 2500TPS이지만, 올해 말까지 1만 TPS를 구현하고, 2019년 말까지 10만 TPS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수직적 블록 검증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다발적으로 검증 가능한 병렬 방식을 사용하는 차별화된 알고리즘을 KT 네트워크와 결합했기 때문이다.

KT는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처리 속도와 용량이 낮아 사업에는 부적합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비공개 데이터 관리로 인해 투명성이 낮으며 소규모 구조로 인해 상대적

으로 보안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전국에 위치한 초고속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노드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성능과 신뢰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KT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인터넷 서비스에도 적용해 IP가 아닌 고유 ID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과 동시에 바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를 사용하면 블록체인 고유 ID가 모든 연결에 대한 인증을 대신 제공할 수 있고 IP를 네트워크 단에서부터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 IP 인터넷에서의 해킹과 개인정보 도용, DDos(분산서비스공격)와 같은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2017년 500억에서 2022년 약 1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KT는 이날 발표를 통해 차별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과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산업 전 영역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2022년까지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를 과기정통부의 예측 규모인 1조 원까지 성장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KT는 36개사가 가입된 ‘KT 블록체인 에코얼라이언스’를 AI, 보안 등 KT가 협력 중인 전체 에코얼라이언스로 확대하고, 중소 협력업체들의 블록체인 사업화를 지원, 관련 사업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KT의 차별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협력업체에 공유해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 기능을 클라우드로 제공함으로써 시장 자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이러한 육성 계획 발표와 함께 ‘블록체인 실증센터’를 서울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 개소하고 활용 방안을 밝혔다. 블록체인 실증센터엔 블록체인의 기반이 되는 P2P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험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KT는 유무선 백본망

과 엑세스망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과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등 영역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KT는 향후 블록체인 실증센터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 및 공유 플랫폼을 에코얼라이언스 협력사에 개방할 예정이다.

KT는 이번에 개발한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기존 유무선 인프라,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그리고 5대 플랫폼 사업 영역(미디어, 에너지, 금융, 재난/안전/보안, 기업/공공)에 적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블록체인을 차세대 기술인 빅데이터, 로밍, AI 등에도 접목해 글로벌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KT 관계자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기 위해 이미 SCFA(Strateg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라는 아시아 최대 통신사업자 협의회를 통해 일본 NTT Docomo와 중국의 China Mobile과 협의해왔다”며 “향후 이들과 지속 협력해 연내에 블록체인 로밍을 상호 검증한 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진범 jnb1001@nate.com

“2분기 QLED·초대형 TV 작년 대비 3배 증가”…하반기에도 웃을까?

삼성전자 “OLED TV와의 경쟁에서도 재미있는 결과 나올 것”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 58조4,800억 원, 영업이익 14조8,700억 원의 2분기 실적을 7월 31일 발표했다. 이종 소비자가전(CE)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줄어든 10조4,000억 원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5,100억 원을 기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라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75인치 이상 글로벌 TV 시장에서 50% 후반대의 압도적이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며 “82인치 이상 TV로 대형 시장 판도를 선도해 초대형 TV는 역시 삼성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QLED TV는 초고화질(UHD) 시청 경험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HDR(High Dynamic Range) 구현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고해상도 콘텐츠를 몰입감 있게 즐기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퀀텀닷 입자에 메탈을 적용하는 새로운 기술로 화질의 수준을 대폭 높여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의 콘텐츠 제작 기준인 DCI-P3 색영역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밝기에 따른 미세한 색 차이를 표현하는 컬러 볼륨까지 100% 구현해 자연에 보다 더 가까운 밝은 빛을 낼 수 있다.

이외에도 음성인식 플랫폼 ‘빅스비’와 ‘스마트싱스(SmartThings)’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기능, 복잡한 연결선을 하나로 통합한 ‘매직케이ابل’과 꺼진 화면

에 이미지-정보를 제공하는 ‘매직스크린’ 등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편의 기능도 추가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QLED TV와 초대형 TV 모두 작년 동기 대비 3배 정도 판매량이 증가했다. 삼성전자 측은 “올 하반기에도 QLED TV와 초대형 TV 중심으로 연말 성수기에 적극 대응해 프리미엄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HS마킷에 따르면 올해 75형 이상 초대형 TV 비중은 5%로 전년 대비 80%가량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75인치 이상 초대형 TV 시장 규모는 지난해 31억6,650만 달러(약 3조3,626억 원)에서 오는 2020년 65억9,790만 달러(약 7조57억 원)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LG

전자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고, 가성비 높은 중국 제품의 추격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LG전자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향후 3년 간

LCD투자를 줄이고 대형 OLED TV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OLED TV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IHS 마킷도 올해 전 세계 OLED TV 판매량이 254만대로 QLED TV 판매량 19만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한중희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장



은 지난 7월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QLED TV 신모델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좋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을 다 맞췄다”며 “하반기에 OLED TV와의 경쟁에서도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백선하 baek@kobeta.com

단신

EBS, 라디오 방송 솔루션 ‘E.MOTION’ 개발

EBS와 ㈜제머나소프트는 7월 19일 일산 EBS 10층 회의실에서 EBS 자체 개발 라디오 방송 솔루션 ‘E.MOTION(이하 E.MOTION)’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E.MOTION은 EBS의 40년 라디오 방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3년 이상의 노력 끝에 국내 방송사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라디오 방송 솔루션이다. 라디오 방송에 필요한 녹음 제작, 생방송 제작, 자동 송출, 시스템 제어 관리, 송출 파일 품질 관리, 웹 기반 관리 등 방송 제작에서 송출에 이르는 모든 기능을 효율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라디오 방송의 뛰어난 품질 관리, 안정성, 내구성, 사용자 용이성을 비롯해 특히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아 시스템 관리와 운영의 편리성을 구현했다.

EBS는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제머나소프트에게 E.MOTION에 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이용허락권을 승인하고, 해외에도 EBS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E.MOTION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호준 EBS 융합기술본부장은 “국내 방송사 최초로

EBS가 자체 개발한 E.MOTION의 저작권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방송 솔루션 기업인 ㈜제머나소프트와 공유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일조하고, 또한 E.MOTION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방송사들에 널리 보급해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KBS, 국내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 신설

KBS가 방송사 최초로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조사 및 피해 보호와 성평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센터를 신설한다.

KBS는 사장 직속 상설 조직인 성평등센터가 7월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평등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조사 및 처리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 및 성평등 관련 규정 제정에 주력하게 된다.

KBS는 지난 5월부터 KBS 양대 노동조합 및 KBS여성협의회 등과 전담기구 신설을 포함한 성평등 제도 및 문화 전

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해 첫 결실을 맺었다. 성평등센터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대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성평등 자문 위원회를 운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연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방지 조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KBS는 “이번 성평등센터 설립은 지난 4월 6일 취임한 양승동 KBS 사장이 성평등 조직문화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라며 “미래 운동 이후 방송사 최초 상설 조직으로 신설하는 것이어서 향후 방송 산업 내 성평등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EBS, 남북교육교류추진단 신설

EBS가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EBS는 7월 20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담 조직

인 ‘사회책임경영실’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인 ‘남북교육교류추진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책임경영실 신설은 장혜량 EBS 사장의 약속 실행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앞서 장 사장은 지난 1월 신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한 EBS의 장점을 살린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신설된 사회책임경영실은 사장 직속 부서로 공유 가치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전 부서의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어린이·청소년교육·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들과 공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교육교류추진단은 남북 평화의 시대에 발맞춰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신설 조직됐다. 남북교육교류추진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지원 및 교육 관련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 공동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미래 통일 세대를 위한 남북한 청소년 공동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숙희 sh45@kobeta.com

제25-26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취임식 열려

제26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에 이상규 MBC방송기술인협회장 당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7월 1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25대·26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강다솜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변창립 MBC 부사장, 김용덕 KBS 제작기술본부장, 김종규 MBC 방송인프라본부장, 안혜란 MBC 라디오 본부장, 류기형 SBS 기술본부장(CTO), 이호준 EBS 융합기술본부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류지열 한국PD연합회 회장, 김용한 한국방송 미디어공학회 회장 등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임한 제25대 박종석 연합회장은 “2년 전 이맘때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로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탄압받고 공영성이 극도로 훼손돼 있었는데 방송기술인들로 구성된 연합회도 언론노조, 언론연대, PD 연합회 등과 함께 언론 종사자로서 힘을 잃지 않기 위해 함께 일어섰다”며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미디어 산업이 융합의 길로 접어들면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방송기술인들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것 같다”며 “방송기술인들이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를 융합시켜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세계 속의 문화로 이끄는 주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임사를 전한 박 회장은 유주열 전 SBS 방송기술인협회장, 윤현철 전 EBS기술인협회장, 서기승 전 CBS방송기술인협회장,

조상우 YTN기술인협회장에게 감사패와 상금을 각각 수여했다. 이어 임신환 25대 연합회 부회장, 박재석 25대 연합회 전 사무처장, 김창근 25대 연합회 사무처장, 서영우 25대 연합회 정책실장에게는 공로패를, 2년 동안 월간 방송과기술 편집장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준 이정택 전 편집장에게도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다.

박 회장은 제26대 이상규 신임 연합회장에 연합회기를 인도한 뒤 단상에서 내려갔다. 연합회기를 전달받은 이 회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보다 더 극적인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목도하고 있는 2018년 연합회장을 맡게 됐다”며 인사의 말을 꺼냈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 아시안게임까지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줄지어 있는

2018년을 대비해 지난해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시작했지만 UHD TV 판매량 늘었을 뿐 방송사가 기대했던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는 1년 전과 비교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며 “더 늦기 전에 지상파 UHD 방송이 차세대 방송으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연합회는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송기술 연구 등의 목표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방송기술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오래전부터 서로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일 후 사회 통합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며 “한반도 역시 방송 교류를 통한 신뢰 회복이 필요한데 남북의

방송 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방송기술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방송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해외 방송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해 남북 방송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취임사 직후 26대 연합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집행부를 소개했다. 26대 연합회 집행부는 이 회장을 필두로 서상원 사무처장, 박민상 정책실장, 양갑찬 교육실장 체제로 운영된다.

이후 변창립 MBC 부사장과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유튜브 ‘프렌즈넷’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수영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다.

백선하 baek@kobeta.com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제26-1대 대의원대회 개최

“통일 한반도 시대 대비하는 연합회 될 것”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7월 11일 오후 5시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2층 스탠포드룸에서 제26-1대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정수 76명 중 52명(위임 12명 포함)이 참석해 △제25-2대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제26대 회장 선임 건 △제26-1대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제26대 감사 선임 건 등을 의결했다.

서영우 25대 연합회 정책실장의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대의원대회에서는 먼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연합회 활동 내용과 주요 성과를 보고했

다. 서영우 정책실장은 “25대 연합회는 ABU, NAB, EBU, DVB, SBE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방송의 위상 제고와 방송의 미래를 위한 국제 공조를 활성화하고,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기술인들의 신규 직무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종석 25대 연합회장은 25-2대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보고하면서 “월간 방송과기술” 광고 수익이 악화돼 올해 3월부터 광고 외주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장상원 25대 감사 역시 이 부분을 언급하며 “광고 외주화를 통해 월간 방송과기술 수익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연합회 예산 기획부터 조정 편성이 필

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26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규 연합회장은 서상원 연합회 사무처장, 박민상 연합회 정책실장, 양갑찬 연합회 교육실장을 차례로 소개한 뒤 제26-1대 사업계획과 회계연도 예산 승인 건, 감사 선임 건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 회장은 “모든 이슈가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묻혀있지만 2018년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해”라며 “더 늦기 전에 지상파 UHD 방송이 차세대 방송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6대 연합회는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송기술 연구 △통일 한반도 시대를 대비하는 방송기술의 역할 등의 목표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각 안건들의 의결을 주문했고, 대의원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해당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남북 방송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방법론 모색



박종원
KBS 네트워크시설국 국장

남북 협력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

세계 유일의 분단국 한반도에서 민족의 평화 공존과 화해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정치, 외교, 경제 분야는 물론 미디어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JTBC는 북한에 평양지국을 설립해 가장 빠르게 북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는가 하면, KT는 방송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초기에는 가장 빨리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위성방송을 통한 협력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남북 협력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남북 경협에 맞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무선 통신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추진 중이다. 공영방송에 부여된 민족의 화합과 남북의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통일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독일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독일 통일 전 80%가 넘는 동독 시민들이 서독의 공영방송을 시청해 왔으며 이는 동독 시민들의 의식 변화에 크게 기여한 걸로 알려져 있다. 서독은 PAL, 동독은 SECAM 방송 송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며, 두 방식은 주사선과 헤르츠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서독 간 방송 시청이 가능했다. 정치·경제적 상황이 독일과 많은 차이가 있지만, 통일 과정에서 보여준 공영방송의 역할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영 방송과 달리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설계되고 제도화돼 있다. 방송법 제43조(설치 등)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의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 기간 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송해, 남북의 동질성과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남북한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막대한 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난시정 해소, 대규모 방송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공적 목적에 수신료 지급만으로 누구나 어디에서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상업적 측면에서 남북 방송 교류·협력이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선도적으로 방송 교류·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장이 실패할 우

려가 있고,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공익적 역할이 필요한 남북 방송 교류·협력과 통일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가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다.

기존의 남북 방송기술 교류·협력

참여정부 시절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하면서 방송기술 분야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2004년부터 시작한 드라마 〈사육신〉 공동 제작 과정에서 KBS는 드라마 제작에 사용하는 동시녹음 장비, 드라마 촬영 장비, 편집 장비 등 총 210만 달러를 제공했다. 또한 2005년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방문해,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기술 이전과 편집기 등을 지원했다. 당시 방송위원회가 중심이 돼 KBS는 SD급 디지털 중계자를 지원할 정도로 남북 방송기술 교류 사업은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제작 장비, 중계자 지원 등 장비 지원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었다.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의 방송기술 교류·협력 사업은 중단됐다.

북한의 방송 체계 및 시스템

북한의 방송 체계는 내각의 문화성 아래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있으며, 중앙방송위원회는 조선노동당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3개의 텔레비전 매체와 평양FM방송을 관장한다. 방송 시설은 내각의 체신청(중앙방송국)이 관장하며 아래에 시도 체신국과 군 체신소가 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텔레비전 전송 방식은 미국의 ATSC 방식을 사용하는데, 북한은 아직도 아날로그 PAL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방식인 DVB-T 방식으로 채널당 8MHz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지상파방송은 조선중앙TV, 만수대TV, 통남산TV 등 3개 매체를 가지고 있다. 조선중앙TV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양, 해주, 사리원 등 20개의 송신소를 통해 북한 전역에 PAL 방식으로 송출하는 유일한 전국 종합채널이다. 만수대TV는 평양 시민과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 전문 방송으로 방송사는 평양 만수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밖에 1997년 개국한 조선교육문화TV는 평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통남산TV로 전환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인재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방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방송 체계와 현황은 대부분 과거의 자료로 정확성이 떨어져 향후 교류·협력과 함께 북한의 전파 방송 분야의 현황에 관한 자료와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남북 방송기술 교류 활성화 방안

한반도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보 제공, 비판과 감시, 여론 형성, 사회화, 오락, 광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미디어의 사회적 의미는 매우 크다. 수십 년 동안 이질적 구조로 발전해온 남북 간 민족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방송·미디어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TV의 경우에는 전송 방식이 다르고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서 방송 호환이 쉽지 않다. 남



북한의 매체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중단파방송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검토된다. 현재 KBS는 남북한, 일본, 중국 연변, 러시아 연해주 일대까지 커버하는 중단파 '한민족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그림 참조). KBS 당진송신소는 1,500kW의 중파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김제송신소에서는 500kW의 중파 신호를, 화성송신소에서는 100kW의 단파 신호를 송출해 한반도와 주변의 재외 동포와 북한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중단파 한민족방송을 활용해 우리말 겨레 사전과 같은 콘텐츠를 통해 남북의 언어를 통일하고 남북 간 문화적 격차를 좁히는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7년 완공한 파주시 적성면에 소재한 북강악중계소는 남쪽으로는 파주, 북쪽으로는 개성공단을 커버리지로 하고 있어 향후 개성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가 설치되면 개성에서도 KBS의 텔레비전과 FM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북한의 텔레비전 전송 방식을 통일해야 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은 전송 방식이 달라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UHD 방송에서 미국식 ATSC 3.0으로 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모바일 방송 측면에서 지상파 DMB 방식을 북한이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남북한이 동일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매체와 도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공산 체제에서는 방송이 당의 선전 수단이자 이데올로기 전파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당의 직접 관리를 받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 교류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가치 중립적인 방송기술 분야의 왕래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KBS 한민족방송 중단파방송 전파 커버리지

남북 교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는 회의체를 통해 남북한이 주기적으로 교류·협력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이다. 한편, 방송 시스템과 매체를 활용한 교류·협력 외에도

과거에 추진해 온 방송 제작 장비 지원 사업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남북의 방송기술인들이 모여 방송 표준 방식과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차세대 미디어와 방송기술을 공동 연구하는 것도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북 방송기술인들이 교류와 교육을 위한 남북방송기술 교육원 설립도 고려해 볼 만하다. 남북의 방송기술인들이 교류를 통해 주파수 연구, 방송 방식 연구,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세미나 개최와 교육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은 공영방송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KBS가 운영해 온 한민족방송의 인프라를 활용해 방송 교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남북 방송기술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남북한이 동일한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기에는 텔레비전 방송 방식을 통일하고 많은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방송국의 설립과 함께 보편적 서비스를 도달하기 위한 방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결국 남북 교류·협력의 역할 수행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또는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남북의 화해 분위기와 함께 공영방송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참고문헌

- 정윤식(2018), 남북 교류와 통일 시대, KBS의 역할
- 황성진 등(2009), 북한 방송통신부분 및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현황 보고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 통일 대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센터 추진 방안 연구
- 심영섭(2015), 통독 이전 이후 사회적 통합을 위한 독일 공영방송의 역할과 과제
- 탁재택(2015), 한반도 통일 시대를 대비한 공영방송의 역할과 과제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심판유감

칼럼



오건식
SBS 인사팀부 국장

기술은 앞서가지만 그 기술을 수용하는 이들의 자세에 의해서 기술의 효용성이 결정되는 것이 안타깝다. 사용 방법을 쉽게 개발해야 하겠지만, 간혹 사용 의지가 전혀 없는 평안 감사를 만나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방송기술인들의 숙명이라 생각하지만, VAR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심판을 보는 것처럼 착잡할 따름이다.

스포츠 경기, 특히 구기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선수나 감독도 중요하지만 필자 생각으로는 당연히 심판이다. 이전부터 자주 들어온 문구의 하나로 '경기에 이기고 승부에 졌다'라는 표현이 있다. 경기는 잘했으나 윤이 나빠서 졌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불공정한 심판 판정으로 인해 졌다는 의미로 쓰인다.

HD 및 UHD로 생중계된 러시아 월드컵은 그 어느 대회보다도 판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도 피해를 본 국가 중의 하나다.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심판의 판단 미스를 보완하고자 VAR을 전격 도입했다. VAR은 8대의 Super Slo-mo와 4대의 Ultra Super Slo-mo 카메라를 포함한 37대의 카메라의 영상을 이용해 판정을 한다. 별도로 Off Side 판정을 위한 카메라 2대도 사용한다. 경기장 영상은 모스크바에 설치된 VAR 센터로 지연 없이 전송돼 판독의 기초 자료가 됐다.

물론 VAR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은 절대적으로 주심의 판단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 변방이라고 간

주되는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데에는 이렇게 심판들의 잠재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있다. 아마도 학창 시절에 공부 좀 하는 친구와 같이 일을 저질렀지만 혼자만 처벌받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VAR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경기 매너란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 같다고들 한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 입장에서 처음에는 무심했지만 점점 더 VAR이 바로 몰카라고 생각하게 된다.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가짜 CCTV 한 대만 달아놓아도 무단 투기가 현저하게 준다고 하는데, VAR을 몇 번 경험해 본 이후에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 싫어서라도 선수들의 행동이 조금은 조신해지는 것 같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VAR 도입 이외에도 공인구에 NFC 기능을 넣었고, 선수들의 유니폼에는 가속계·GPS·자이로스코프·심박계 등의 항목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인 EPTS 기능을 넣었으며, 공의 골라인 판독 기능·경기 진행 상황 체크·VAR 센터와의 교신 등의 기능을 가진 심판용 스마트 워치 등이 사용됐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방송 및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좀 더 공평한 판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심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페널티킥이 주어지거나 무시되는 상황만큼은 아직도 '복불복'인 것 같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핸들링의 고의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핸들링 반칙을 범한 선수의 성장 과정, 교우 관계, 사회성, 세계관, 음식 취향이나 문화적 소양 등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머지않아 AI가 심판을 대체할 것 같다.

아직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소양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심판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요즘 지난 시절 특히 지난 정부 때 사법부의 처신에 대해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 거래'라는 이름의 의혹에 대해 사법부 수뇌부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적극 부정하지만, 이 또한 결론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아~ 이러니? 지금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과연 그들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표현은 종종 '판결 결과는 역울하지만 강 참는다'란 뜻으로 읽힌다. 그만큼 우리에게 심판의 역할을 일임받은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있었다는 뜻이다.

돌아보면 방송, 특히 생방송에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서 징계를 받은 일들이 있었다. 나름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사용법까지 전수했지만, 다른 직군 사용자의 이해 부족 및 조작 실수로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 기술이 폄하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이와 같이 기술은 앞서가지만 그 기술을 수용하는 이들의 자세에 의해서 기술의 효용성이 결정되는 것이 안타깝다. 물론 사용 방법을 쉽게 개발해야 하겠지만, 간혹 사용 의지가 전혀 없는 평안 감사를 만나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방송기술인들의 숙명이라 생각하지만, VAR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심판을 보는 것처럼 착잡할 따름이다.

각설하고, 여러 악조건에서도 러시아 월드컵 중계방송을 위해 노력한 방송기술 스태프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고료 나오면 한 잔 살게여~~

사설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

방송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영방송 이사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5일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하반기 전체 회의에서 '신뢰받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 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첫 번째 정책 목표인 '신뢰받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 환경 조성'의 주요 업무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꼽았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방송과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보았으며 공정하지 않은 방송과 언론의 피해자는 결국 사회 구성원 전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스럽게도 시민의 촛불로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고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시점에서 방통위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첫 번째 주요 업무로 꼽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통위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사 임원(KBS-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등의 임기가 올해 8월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권이 나눠먹기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요청해왔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공모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으나 단 5일간

의 의견 수렴 기간과 실명 인증을 거쳐야 후보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는 그간 공영방송 정상화를 간절히 원했던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시민사회는 정치권의 개입 없는 이사 선임과 방송의 독립성, 공영성 등 10여 가지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을 제시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여기에 더해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 요건으로 미래 방송에 대한 비전을 요구한다.

이는 방통위의 정책 목표인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상파와 UHD 방송의 전국 서비스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 모든 공영방송 이사들이 UHD 방송과 MMS, OTT 서비스를 이해하고 지상파와 방송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단 한 명의 이사라도 이러한 덕목을 갖추기를 희망한다.

지상파와 UHD 본방송을 1년 앞두고 방송 표준을 미국의 ATSC 3.0 기반으로 다시 제정했을 때 내세운 명분은 뛰어난 수신 성능과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였다. 이러한 지상파와 UHD 방송의 장점을 활용하면 재난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며 다채널 방송은 물론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OTT 서비스까지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깔리고 있는 UHD-TV는 이러한 기능을 다 갖추고 있지 않다. 만일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마냥 시간이 흐른다면 1, 2년 후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의해 공영방송의 이사들이 언제 선임될지 모르겠으나 이번엔 새로 선임될 공영방송의 이사에게 미래 방송에 대한 비전을 요구하는 이유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이상규
편집주간 | 박재현
편집위원 | 김대환, 김지옥, 양창주, 이용학, 유의정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인쇄인 | SJC성전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전화 | 02-3219-5637
트위터 | @kobetajournal
페이스북 | @kobetajournal
홈페이지 | journal.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오디오 MIXING&MASTERING 교육 안내

1. 교육 목적

- 실제 방송 현장 recording, 5.1 mixdown, 5.1 mastering
- 녹음, 편집, mixing, 토론을 통한 workshop 형태의 실무 과정
- 현재 음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음향감독들을 위한 고급 실무 과정
- 보컬 편집, 보컬 튜닝, 믹싱 밸런스, 마스터링 등 실무적 과정에 중점

2. 교육 일정

- 교육 일정 : 2018.08.20(월) ~ 08.22(수), 총 3일
- 교육 대상 : 지상파 방송기술인 13명
- 교육 장소 : KBS 본사 신관 및 별관

3. 접수 방법

- 8월 7일(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edu.kobeta.com)를 통한 선착순 접수

4. 기타

- 교육비 : 무료
- 담당자 : 강민정 차장, 민서진 과장
- 문의사항 : 02-3219-5640~1
- E-mail : bea@kobeta.com



일정	시간	단위	강사	교육장소	교 육 내 용
1일차 8/20 (월)	09:40~10:00	20분	방송기술교육원	KBS 신관 믹스다운실	• 교육 사업, 일정 및 공지사항 안내
	10:00~12:00	2시간	KBS TV기술국 김태룡		• 믹스다운 준비 및 시설 장비 설명
	12:00~13:30	1시간 30분			• 믹스다운 설명 - 악기별 Process - 보컬 Edit
	13:30~14:30	1시간	KBS TV기술국 김형창		중 식
	3시간	• 믹스다운 밸런스 - Music, Vocal 밸런스 - 방송 Loudness Level			
2일차 8/21 (화)				SBS 목동 방송센터	• 편집 및 믹싱 실습 - DAW EDIT 실습 - Plug in 활용
	10:00~12:00	2시간	KBS TV기술국 이규현		• 스튜디오 시설 견학 및 설명 - TS-D 콘서트 7080
	12:00~13:30	1시간 30분			중 식
	13:30~16:00	2시간 30분	KBS TV기술국		• 시스템 구성, - 악기 구성 - 마이킹 & 스피커 설치 - PA & Stage Level 세팅 - 사운드 체크
3일차 8/22 (수)	16:00~17:30	1시간 30분	양정화		중 식
				KBS 신관 SMR14	• 음향 리허설 - 방송, PA, Stage 운용 - MTR & Ambience
	10:00~12:00	2시간	KBS TV기술국 이장현		• 카메라 리허설
	12:00~13:30	1시간 30분	중 식		• 방송 프로그램 표준 음량 기준 - Loudness 이해 - 정부 고시 기준 주요 내용 - Loudness Meter를 이용한 측정 방법
13:30~16:00	2시간 30분	KBS TV기술국 최명규	중 식		
16:00~17:30	1시간 30분		• DAW 시스템의 이해 - 시스템 구성 및 주요 기능 - Mastering for broadcasting - 표준 제작 절차 - ME 분리 제작 기법 - Plug-ins		
	17:00~17:10	10분	방송기술교육원		• Audio Restoration - 오디오 노이즈 종류 - lug-in을 활용한 품질 향상 기법
					• 설문조사 및 종료

※ 상기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KOBA 2019



29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29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9.05.22-25
COEX, SEOUL

www.kobashow.com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원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